



창간 14주년

초 대통령'은 누구일까.

“다시, 전 세계의 시선을!” 2018년 그룹 방탄소년단은 앨범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LOVE YOURSELF 轉-TEAR)로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2020년 ‘기생충’은 아카데미 4관왕을 거머쥐며 ‘봉 하이브’(봉준호 감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해외 팬덤) 신드롬을 전 세계에 몰고 왔다. 2021년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은 한국배우 첫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과 주연 이정재·정호연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스타들과 케이(K) 콘텐츠가 빛을 발한 순간의 정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놀라긴 이르다. 명실상부 한국을 콘텐츠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한 주역들의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 세계 팬들의 심장을 저격할 콘텐츠가 연이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유의미한 글로벌 성과를 내며 이정재·정호연과 바통을 터치할 ‘차기 콘텐츠 초 대통령’은 누구일까.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오징어’ 이정재 이을 글로벌 콘텐츠 차기 대통령은 나야 나!

기호 1번 박찬욱



신작만 나왔다하면 전 세계 관심 ‘헤어질 결심’으로 아카데미 도전

▶ 핵심 콘텐츠: 영화 ‘헤어질 결심’

꼭 배우만 뜨라는 법은 없다. 연출자의 매력도 배우의 스타성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봉준호 감독이 이미 입증했다. 그 못지않게 전 세계 새로운 시선을 노리고 있다.

뛰어난 연출력은 말할 것도 없다. 박 감독의 신작은 나왔다 하면 전 세계 관객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이미 2003년 영화 ‘올드보이’로 한국영화의 위상을 드높인 주역이다. 이듬해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거머쥐 뒤 ‘헤어질 결심’으로 다시 칸을 찾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아카데미까지, 봉 감독의 ‘기생충’ 루트를 재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운다.

기호 2번 김민하



‘파친코’ 젊은 시절의 선자 연기 제2의 정호연·리틀 윤여정 주목

▶ 핵심 콘텐츠: 애플TV+ ‘파친코’

‘오징어게임’에 정호연이 있었다면, 25일 공개되는 ‘파친코’에는 김민하가 있다. 약 10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애플TV+의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주인공 선자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다. 선자의 노년을 그리는 글로벌 스타 윤여정과 한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부터 남다르다. 유망한 영어로 외신과 인터뷰를 능숙하게 진행하며 이미 ‘리틀 윤여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파친코’에 대한 반응도 벌써 심상치 않다. 롤링스톤·콜라يدر·할리우드 리포터 등 해외 매체와 평론가들이 이미 “올해 최고의 작품”이라며 극찬했다. 내년 에미상을 노려볼 수 있다는 예측까지 흘러나오는 만큼 김민하의 ‘역사’가 예상된다.

기호 3번 전종서



‘버닝’으로 데뷔와 동시에 칸 참석 ‘종이의 집’ 리메이크 도쿄 역 폐차

▶ 핵심 콘텐츠: 넷플릭스 ‘종이의 집: 공동 경제구역’

2018년 ‘버닝’으로 데뷔와 동시에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곧바로 미국 유명 에이전시 UTA와 전속계약을 맺고 할리우드영화 ‘모나리자 앤드 더 블러드 문’까지 촬영했다. ‘우주의 기운’이 그의 글로벌 비상으로 향할 기세다. 상반기 공개하는 ‘종이의 집’이 또 한 번 비상의 날개가 된다. ‘오징어게임’ 이전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 부동의 1위였던 스페인 오리지널 시리즈의 리메이크 버전이다. 가장 많은 팬을 이끄는 캐릭터 도쿄 역을 폐차다. 성격적 결함 속에서도 과감한 행동력을 지닌 캐릭터가 그 특유의 독특한 분위기와 찰떡궁합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기호 4번 신하균



이준익 감독의 SF물 ‘윤더’ 주연 글로벌 시장에 연기력 뽐낼 기회

▶ 핵심 콘텐츠: 티빙·파라마운트+ ‘윤더’

‘신(神)’하균으로 불릴 만큼 독보적인 연기력을 갖췄다. 하지만 한국 무대는 너무 좁다. 하반기 공개하는 ‘윤더’를 자신을 세계에 드러내 보일 기회로 삼을 태세다.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의 첫 드라마 연출작으로, 하반기 국내 론칭하는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파라마운트+를 통해 전 세계 공개한다. 따라서 대대적인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통해 이름과 얼굴을 제대로 알릴 기회다. 특히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윤더’가 SF물에 유독 남다른 사랑을 드러내 온 미국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통할 거라는 관측이다.

기호 5번 조인성



전세계에 통할 비주얼과 피지컬 한국형 히어로물로 글로벌 진출

▶ 핵심 콘텐츠: 디즈니+ ‘무빙’

‘오징어게임’ 이정재가 멋진 수트를 갖춰 입고 미국무대에 등장하자 글로벌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또 다른 미남, 조인성이 세계무대에 오를 차례다. 서양인의 체격에 절대 밀리지 않는 ‘피지컬’을 보고 반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제작비 500억 원을 들여 하반기 공개하는 ‘무빙’이 한국형 슈퍼 히어로물이라는 점도 해당 장르가 대체로 떠오른 상황에 세계인의 관심을 끌 만한다는 관측이다. 슈퍼 히어로물의 근거지 마블스튜디오의 영화를 독점 스트리밍하며 세계시장에서 OTT 강자 넷플릭스를 위협하는 디즈니+가 공개하기로 해 더욱 그렇다.

‘말발까지완벽달변가당’…대표 봉준호 감독, 고문은 윤여정

재미로 보는 ‘K-콘텐츠 주요 정당’

매시상식마다 달변으로 지지자 모아 ‘신예당’ 정호연 필두 윤찬영 등 모여 ‘톱스타당’ 이정재 대표·박희순 당원

새로운 글로벌 성과를 손에 쥐기 위해 콘텐츠 ‘대권’ 도전에 나선 스타들. 이들은 각기 비장의 무기로 전 세계 관객과 시청자의 시선을 노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내세운다. 이미 뚜

렷한 성취에 이른 ‘동지’들도 이들의 행보에 힘을 보탠다. 바로 그들! 케이(K) 콘텐츠의 주역들이 정당을 창당하고 전 세계 무대를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 말발까지완벽달변가당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달변가’들의 정당이다. 당 대표는 봉준호 감독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로컬 시상식”이라 부르고,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자며 감동을 자아낸 연변으로 지지자들을 대거 빨아들였다. 영국 아카데미상을 “잘난 척하는 영국인들이 인정하

상”이라며 당당한 유머 감각을 과시한 윤여정이 당의 상징인 고문으로 나섰다.

▶주요 당원 : 박찬욱 감독(영화 ‘헤어질 결심’), 윤종빈 감독·배우 하정우(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 차태현(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

● 호랑이보다무서운신예당

무서운 신진들이 모였다. 자신들을 과감히 기용하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 삼아 세계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자랑하고 있다.

올해 미국배우조합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정호연이 당 대표로 나섰다. 박지후·윤찬영·조이현·로몬이 넷플릭스의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해외의 관심을 얻으며 최고위원 자리를 나눠 가졌다.

▶주요 당원 : 김민하·진하·노상현(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 이주빈(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이정재·고윤정(‘무빙’), 황인엽(‘안나수마라’), 강유석(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택배기사’)

● 본투비톱스타당

노련미와 세련된 매너, 저력으로 이제 제법 중견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의기투합했다.

한국 관객에게는 ‘본 투 비 톱스타’인 이정재가 ‘오징어게임’으로 해외에서 ‘샷별’로 인식되며 인생 2막을 열고 대표직에 올랐다. 뒤이어 박희순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임’의 조직 보스로 나서 엄청난 카리스마와 섹시한 매력을 과시하며 ‘지천명(50) 아이돌’로 거듭났다. 원내대표로 활약해달라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열망이 그로 향했다.

▶주요 당원 : 신하균·한지민(티빙·파라마운트+ 오리지널 시리즈 ‘윤더’), 조인성·류승룡·한효주·류승범(‘무빙’), 이민호(‘파친코’), 유지태(‘종이의 집’), 김우빈(‘택배기사’), 강동원(영화 ‘브로커’)

이승미 기자